中國名文鑑賞

2016년 중국명문감상 수강생 編

서울시립대학교 중국어문화학과

목차

種樹郭橐駝傳을 통해 본 無爲사상 ····· 문수빈 1
중국의 정치적 엘리트주의에 대한 에세이 - 宋의 구양수로부터 ····· 이효장 3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 이민서 5
홀로서기[自立]에 앞서 ····· 정재원 7
온유설(溫柔說) ····· 강온유 9
苛政猛於虎 ····· 김송 10
욕심 부리지 않는다는 것 ····· 이현지 2
朋黨論을 통한 대한민국의 정치를 살펴보며 ····· 이지웅 14
위선자의 변명 ····· 이하림 15
구양수에 투영해 본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 ····· 장은서 17
20대의 용기 ····· 선민정 18
種樹郭橐駝傳으로 바라본 복지국가 ····· 김기대 20

種樹郭橐駝傳을 통해 본 無爲사상

문수빈

‘종수곽탁타전’은 나무 심기에 재능이 뛰어난 ‘곽탁타’의 이야기를 통해, 백성을 다스리는 법을 터득했던 유종원의 이야기입니다. 작품을 읽고 수업시간에 토론했던 바를 통해, 저는 노자의 ‘무위사상’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번 학기의 ‘중국고전의 현대적 가치’ 수업에서 노자의 ‘무위사상’에 대해 배웠고, 그 내용과 ‘곽탁타’의 나무 심는 법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작품에서 곽탁타의 나무 심는 법을 설명하는 대표적인 두 마디를 이야기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橐駝非能使木壽且孳也, 能順木之天, 以致其性焉爾.(탁타비능사목수차자야, 능순목지천, 이치기성언이)’, 즉 ‘나는 나무가 오래 살고 무성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천성을 따라 그 본성을 다하도록 할 수 있을 뿐입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곽탁타는 나무를 다 심고나서도, ‘旣然已, 勿動勿慮, 去不復顧(기연이, 물동물려, 거물복고)’, 즉 ‘건드리지 않고 걱정하지 않으며 떠나가서 다시 돌아보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위사상’의 어떤 부분과 곽탁타의 나무 심는 법이 유사한 걸까요?

‘무위사상’에 대해 설명된 자료를 찾다가 도올의 책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여 참고하였습니다. 도올은 ‘무위’를 유위적이고 조작적인, 즉 도(道)의 흐름에 배치되는 악한 행위가 아닌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것은 위선적인 행위, 독선적인 행위, 전체를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적인 행위와 대립되는 의미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즉 곽탁타가 나무를 기를 때 나무의 본성에 나무의 성장을 맡기는 부분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작품 내에서도 탁타가 나무를 기름에 고의로 신경 쓰고, 걱정하고, 어루만지지 않아, 나무가 자연의 이치에 따라 자라도록 하는 것을 이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노자는 ‘도덕경’에서 ‘무위(無爲)’를 강조하면서, 뒤에 아래와 같은 말을 덧붙였습니다. ‘生之畜之, 生而不有(생지축지, 생이불유)’, 즉 ‘만물을 생겨나게 하고 만물을 길러 주어, 생존케 하면서도 그것을 소유하지 않는다’[1]는 의미입니다. 이는 수업시간의 토론에서도 이야기 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예전의 ‘대한항공’ 중국 시리즈 CF에서도 거론된 바 있습니다. 중국 서안의 대안탑을 배경으로 한 장면에서, ‘자식일이라면 만사를 제쳐두는 그대에게 노자 왈, ’생지축지, 생이불유‘’라는 나레이션이 흘러나옵니다. 즉 자식을 낳고 기르되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로 쓴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문장에 대한 도올의 해석 또한 인상적이었습니다. 도올은 위에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해석한 바를 새싹과 헌싹으로 비유하였습니다. 도올의 책에서 이야기하길, ‘새싹은 헌싹에 의하여 소유되지 않기 때문에만 또 다시 새싹을 낳을 수 있는 것이다. 헌싹이 새싹을 소유하면 그 새싹은 끊임없이 생성할 수 있는 길을 차단당하게 되고 곧 시들어버리고 마는 것이다.’[2]라고 합니다. 이는 부모의 마음가짐과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것과 똑같은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부모가 자식에게 자신의 가치관을 강요하는 방식으로써 자식을 소유한다면 자식은 본인의 가치관을 건립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이외에도 현대 사회의 문제를 ‘무위사상’을 통해 해석할 수 있는 사례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저출산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얼마 전 중국어 수업에서 교수님께서 강의해주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접근법이 매우 신선했고, 그 내용 또한 ‘무위사상’과 관련지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저출산을 인류의 자아 조정, 혹은 자아자정 방식으로 보았는데, 이렇게 외부의 고의적인 영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부분에서 무위사상과 상통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아이들을 낳지 않거나 적게 낳으려는 이유로 취업난을 들 수 있습니다.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아이를 낳을만한 개인의 경제 상황이 만들어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사회에서 제공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수요에 비해 턱없이 적습니다. 때문에 인류가 아이를 적게 낳는 것을 선택해 취업의 수요량을 줄이려 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교

1) 노자, 김학주 역, 『노자』, 연암서가, 2011.p.170.
2) 도올 김용옥, 『노자와 21세기 上』, 통나무, 1999, p.136.

수님의 시각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일어난 전쟁으로 인해 인구수가 크게 줄었고, 그 덕분에 노동력의 가치가 상승했습니다. 이와 같이 아이를 적게 낳아 미래의 청년 수가 줄어들면, 노동력 가치가 상승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취업 자리 공급의 균형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나라처럼 인구가 국력이라는 전제 아래, 아이를 많이 낳도록 장려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수는 늘려놓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후대의 청년들을 좋지 않은 질의 일자리로 내모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가 많아져도 양질의 일자리는 유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무위사상'을 통해 바라본다면, 사회가 사람들로 하여금 아이를 낳도록 하는 '유의적인 영향'이 결국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 것이므로 노자의 무위사상과 상반되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무위사상을 통해 바라본 현대 사회 문제의 두 번째 사례로는 '공교육'을 들 수 있었습니다. 공교육은 학생들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교육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노자가 이야기하는 '무위사상'과 완전히 대립한다고 생각하는데, 공교육이라는 '헌싹'의 기록으로 '새싹'인 아이들이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을 제한시키기 때문입니다. 특히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의 어린 학생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공교육이기 때문에, 공교육의 교육방식, 교육내용 등 모든 성분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의 저로써는 수업방식에 대한 건의, 즉 교육 방식의 작은 부분에 대해서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지, 제 개인적 차원에서 현재의 학교 교육 이외의 교육 방식을 고안해내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현재 거론되는 '국정교과서'처럼 한 방향의 사상에 치우친 역사 교육을 공교육이라는 방법을 차용해 진행하지 말아야한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가치관을 하나의 프레임 안에 고정하는 것이고, '무위사상'과 완전히 상반된 교육방식입니다. 공교육이 학생들이 본인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사고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만들어 주는 역할로서의 '위(爲)'라면 찬성합니다. 하지만 어른들의 가치관을 주입시키는 방식의 교육은 완전히 '유위'적인 행위이며, 이는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종수곽탁타전'과 '무위사상'을 엮어 현대 사회문제까지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제가 작품을 읽으면서 무위사상에 특별히 관심을 가진 이유는, 제 어머니의 교육방식이 '무위사상'과 비슷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특정 교육방식이나 당신의 가치관을 저에게 강요하지 않으셨고, 다행히도 저는 이러한 어머니의 슬하에서 크게 엇나가지 않고 지금까지 성장해왔다고 생각합니다. '무위사상'에 대한 이해가 극한에 이르면, 무위는 마치 운명과 본성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과 같이 무기력해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고찰을 통해 마치 연애를 할 때, 상대에게 집착하지 않고 적당한 '방목'을 행하는 것처럼, 저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 적당한 정도의 '무위사상'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참고자료

『노자와 21세기 上』, 도올 김용옥, 통나무, 1999.
『노자』, 노자, 김학주 역, 연암서가, 2011.
「[아시아블로그] 절체절명의 지구온난화」, 『아시아경제』, 2016.08.24.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81813011809410> (2016.12.08.)

중국의 정치적 엘리트주의에 대한 에세이 - 宋의 구양수로부터

이효장

21세기 현대 중국의 정치체제는 세계적으로 '중국에만' 존재하는 매우 특이하고도 특수한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소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혹은 '중국식 민주주의'라 일컫는다. 중국의 정치체제는 북한으로 대표되는 '선군정치'라고도 일컫는 독재정치체제, 미국으로 대표되는 연방제 민주주의, 혹은 지구상에서 가장 합리적으로 보여 지는 정치 이데올로기인 대의제 민주주의 그 어느 편에도 속하지 않는 독자적인 정치제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어릴 때부터 미국식 민주주의 교육을 받고 자란 우리가 생각할 때 국가의 이상적인 정치체제라 하면 마치 정치제도의 답은 하나로 정해진 것처럼 자연스레 미국이나 영국식 자유민주주의를 떠올린다. 또한 이것은 경제, 정치적 자유주의 대안으로 떠오른, 소련을 비롯한 경제, 정치적 사회주의 국가들이 잇달아 실패하고 붕괴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합리적이고도 자명한 사실이 되었기도 하다.

"근대에 규모가 큰 국민국가가 등장하면서 연방제나 대의제는 규모의 문제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으로서 제시되었다. 한편 서구의 사상가들은 전근대의 중국도 자신의 사상체계에서 설명하고자 하였는데, 그들은 무엇보다도 그 대규모성에 주목하였다. 그들의 입장에서 중국의 대규모성은 전제주의나 사회적 낙후의 원인이 되었고, 따라서 불합리한 조직이었다. (중략) 연방제는 중앙과 지방 사이의 역할 구분과 관련해서 여러 나라에서 채택되고 있는 제도이다. 마찬가지로 대의제도 오늘날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내용을 이룬다."[3]

하지만 이렇듯 대규모성을 지닌(그것도 15억이나 되는 인구수를 가진) 중국 사회에서 규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뽑아든 카드는 근대에 가장 유력한 정치 방안인 연방제도 대의제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독재정치도 사회주의도 아니었다. 그렇다면 중국이 주장하는 중국식 민주주의,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가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것은 바로 "엘리트 민주주의"[4]이다. 쉽게 말하면 '대의제 민주주의'가 아닌 '대표제 민주주의'를 바로 엘리트 민주주의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대의제 민주주의에도 엘리트 민주주의적 색채가 없지는 않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만 봐도 직접선거를 통해 모든 국민이 정치에 참여 할 수 있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따르고 있기에 엘리트 민주주의와는 그 차이가 있다. 하지만 중국은 선거를 통해 국가주석 이라던가 당 총서기를 뽑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중국에서 대표제 민주주의의 논의는 결국 '누가 어떻게 왜 대표 하는가'와 관련이 있다. 이것이 중국에서 정치엘리트의 충원의 형식과 특징과 관련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의 출발은 엘리트 충원에서 선출이 가장 민주적인 장치라는 것을 부정하고 선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즉 선거를 통한 대의제 민주주의의 엘리트 충원이 결국은 '선출(election)'에 있을 뿐 선(選)+거(擧)의 원래적 의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5]

---

3) 김영진,「서구 정치사상에서 국가의 규모, 민주주의 그리고 중국의 정치체제」

4) Pareto에 의해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정치 사회학의 주요 관심사가 되어 오고 있는 엘리트 이론은 인간 능력에 대한 대등성을 부인하고 한 사회에는 언제나 지배하는 소수가 있게 마련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20세기 이후 시대적 상황과 민주주의 개념의 변화에 근거하여 엘리트 이론이 민주주의 이론과 결합하기 시작하였다. 현대로 옴에 따라 소수가 다수를 대표하는 대의 민주주의가 민주주의의 일반적 형태로 생각되게 됨에 따라 현실적응의 요구에 의해 민주주의와 엘리트 이론이 결합 할 수 있었던 것이다. - 이희옥、양갑용,「중국식 민주주의와 엘리트 충원방식」

5) 이희옥,『중국의 새로운 민주주의 모색』, 서울, 성균관대학 출판사, 2014, 189쪽.

나는 이런 현대 중국의 엘리트 민주주의의 정신을 송대의 구양수에게서 볼 수 있었다. 구양수[6]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성인이 되어 몇차례 과거시험에 낙방하기도 하였으나 결국 진사[7]시험에서 수석을 하는 끈기와 재능을 보였다. 그 후 한림원학사, 참지정사 등의 관직을 거쳐 태자소사가 되었다. 인종과 영종 때는 범중엄과 한기를 중심으로 한 새 관료파에 속하여 부정부패와 무능한 관료사회를 일신하는데 활약하였고 조정의 일에 관심을 갖고 서슴치 않는 간언을 하였다. 그러나 이 때문에 보수파 조정 권신들의 미움을 사 몇 차례나 좌천당하기도 했다. 이런 정치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구양수는 그의 정치철학을 꺾이지 않은 채 굳게 지켜 나갔다. 이러한 구양수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붕당론'과 '취옹정기'가 있는데 이 두 작품을 통해 현대 중국의 엘리트 민주주의 정신과 일맥상통하는 혹은 현대 중국이 나아가야 할 엘리트 민주주의의 참된 방향을 찾아 볼 수 있었다.

우선 '붕당론'을 보면 구양수는 이 글을 통해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면서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척하는 소인의 붕당과 당의 이익을 명확히 제시하고 국가의 비전을 논하는 군자의 붕당을 구분하였다. 이것은 현대의 '엘리트'로 대표되는 당시 '군자'가 가져야 할 이상적인 정치상을 보여주었고 한편 무분별한 정치를 행하는 '소인'에 대한 경계심을 보여주면서 엘리트 정치적 측면에서 그 방향성을 보여주었다고 보여 진다. 이러한 구양수의 간언은 중국의 엘리트 민주주의의 방향성뿐만 아니라 최근 대한민국 사회에서 일어난 일련의 정치권과 결탁한 경제적, 도덕적 문제들과 관련하여 '엘리트' 인척하여 국정을 농단한 자들, '국가를 위했다는 명분'아래 자신의 이익을 좇기에 급급했던 소인배들에 대해서도 역시 일침으로 쓰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취옹정기'를 에서도 역시 구양수의 '엘리트 민주주의'적 정치 마인드를 엿볼 수 있다. 취옹정기에서는 술을 마시며 잔치를 열어 자연의 아름다움과 산수를 즐기는 즐거움을 서술하였다. 특히 그러한 흥취를 '동기락'[8]하는 것의 가치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여기에서 백성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저주(滁州)의 태수로써 민주주의의 원칙[9] 중 하나인 '국민을 위한' 정치를 여실히 추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그러는 한편 '엘리트'의 입장에서 "然而禽鸟知山林之乐，而不知人之乐；人知从太守游而乐，而不知太守之乐其乐也。醉能同其乐，醒能述以文者，太守也。太守谓谁？庐陵欧阳修也。" 라며 엘리트와 일반 백성들이 다르다는 것 역시 강조하면서 엘리트로서의 차별성을 스스로 인식함을 보여준다. 이렇듯 지금 으로부터 1000여 년도 더 전의 구양수라는 문인이자 정치가가 제시했던 정치상은 현대 중국의 "엘리트 민주주의"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통하는 부분이 있으며 심지어는 현대 정치가들이 어떠한 정치적 방향성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선견했다는 점도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물론 현대 중국 정치도 단순한 선출의 메커니즘에서 벗어나 고대 정치에서 활용되었던 '거'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여러 차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노력해왔다. 모택동 역시 "덕과 재를 겸비한 간부가 없으면 역사적 임무를 완성할 수 없다"며 엘리트 민주주의를 더욱 강화하며 국민의 뜻을 다 할 수 있는 국가적 인재를 양성할 것을 추구하고 있다. 대규모성을 지닌 중국 정치가 올바른 엘리트 민주주의, 중국식 민주주의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으로 역사와 고전의 가치는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 같다. 한편으론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도와주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구양수와 같은 사람이 이 시대의 대한민국 정치권에도 있었더라면..' 하는 생각이 절실히 드는 밤이다.

---

6) 구양수는 당송8대가의 한 사람이었으며, 후배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고 소식의 부친인 소순도 구양수의 제자였다.

7) 진사과는 시험이 가장 어렵고, 한번에 합격되는 수는 2 ~ 30명으로 명경과의 1/10 이었기 때문에 가장 중요시 되었고 지위는 다른 과보다 높았다. "명경과는 30세까지, 진사과는 50세라도 젊은 사람'이라는 말은 진사과가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8) 같이 즐거워함. <맹자, 양혜왕하>의 "백성들과 함께 즐긴다."와 같은 뜻.

9) 민주주의를 정당성의 차원에서 본다면 '국민의 정치'(民有, of the people), '국민을 위한 정치'(民享, for the people), '국민에 의한 정치'(民治, by the people)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당시는 전제적인 왕권 시대였고 민주주의라는 개념조차 잡히지 않았던 터라, 모든 민주주의의 정당성의 차원이 구양수에게 갖추어 져 있다고 말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

이민서

이번 학기에 읽었던 작품들은 자연에서의 전원생활, 인생에 대한 고민, 군주와 관리가 갖추어야 할 덕목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었다. 이천년도 더 된 글부터 감상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장이 지금의 우리가 충분히 읽고 이해할 수 있었고, 그 구절들은 함께 고민해볼 수 있는 내용이었으며, 그 작품의 주제가 지금의 시대에도 가르침이 될 수 있었다. 특히, 그 가르침은 대부분 현 시대의 대한민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과 부족한 점을 지적하고 있었다. 현재의 대한민국 사회는 뿌리 깊은 곳까지 부패했다. 국민들이 국민들의 뜻을 실현해 달라고 직접 뽑은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사사로운 이익을 챙기느라 바빠 대의를 저버렸다. 그리고 대기업은 이러한 정부의 행태를 조력했고, 사법기관 또한 정부의 행태를 방조했으며, 언론은 그 사실을 은폐하기에 힘썼다. 결국 이러한 정부는 많은 국민들에게 신뢰를 잃었고, 법치주의 국가로서의 명분이 흔들리고 있다. 이러한 시국에서 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이 자신의 명분을 바로 세우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행해야 한다. 국민이 없으면 그 국가도 존재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나랏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무릇 국민의 뜻을 살피고, 국민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가 읽은 명문(名文)들 중 몇 작품은 이러한 잘못된 정치를 경계하며 가르침을 주고 있고, 몇 문장은 국민을 위한 정치라는 하나의 주제로 관통되고 있다.

「桐葉封弟辯」- '設未得其當, 雖十易之, 不爲病, 要於其當, 不可使易也.'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자신이 내린 결정이나 이미 내뱉은 말을 바꾸고 안 바꾸고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말 혹은 결정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그 '當'이 중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타당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무엇에 대하여 타당해야하는 것일까? 지도자로서 타당함의 기준은 '국민의 뜻에 맞는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위 문장에서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지도자가 내린 결정은 반드시 국민의 권익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만약 이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미 내린 결정이라도 바꾸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하지만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 타당함의 기준을 자기 무리들의 이익으로 삼는 자들이 있다. 「捕蛇者說」은 그러한 사람들에게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비난하고 있다.

「捕蛇者說」- '嗚呼! 孰知賦斂之毒,有甚是蛇者乎? 故爲之說, 以俟夫觀人風者得焉.'

위 문장은 위정자들이 서민들의 삶을 살피지 않고, 즉 타당하지 못하게 그들의 이익을 위해 세금을 혹독하게 거두는 것을 비난하고 있다. 물론 위정자들이 그들 마음대로 세금을 인상할 수 있는 시대는 떠나갔지만, 현 사회의 내부 사정을 살펴보면 결국은 현재의 정치인들도 「捕蛇者說」 속의 관리들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삶을 살피기보다 그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 문장과 포사자설에서 비난하고 있는 정치는 비단 당시의 정치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觀人風者(민간 풍속이나 정세를 관찰하는 사람)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도 정확히 겨냥하고 있다. 게다가 지금 시대는 겨냥 받을 관리가 개개인이 아닌 여러 무리이다. 무리를 지어서 정치를 하는 만큼 모인 개개인의 명분이 바로서야 그 무리의 가치관 또한 바로설 수 있다. 붕당론은 이 지점을 중시하고 있다.

「朋黨論」- '君子則不然, 所守者道義, 所行者忠信, 所惜者名節.'

국가적인 큰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혼자의 힘으로 한계가 존재한다. 현대의 정치인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정치적 사상·주장이 같은 사람들과 모여 정당을 형성해서 정권을 잡고 이상을 실현한다. 무리를 이루는 것은 대의를 실현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 무리가 어떤 사람들이 모였고 그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을 추구하기 위해 모였는지는 짚어봐야 할 부분이다. 그들이 함께 추구하는 바가 대중의 도를 이루는 것이라면 이는 바로 '君子之眞朋'이지만, 그들이 함께 모여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한다면 이는 '小人之僞朋'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실, 「朋黨論」에서 발췌해 온 위의 문장을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그들이 지키는 도의는 오롯이 백성을 위한 도의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왕정시대의 신하들은 왕조에 충성하는 자들이었고 사람 위에

더 높은 사람이 있고 사람 아래 더 낮은 사람이 있던 때였다. 그렇기 때문에 위 문장에서처럼 당시의 좋은 관리란 백성을 위하는 관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과 신의를 받들고 행하는 관리도 포함되었을 것이다. 다시 말해, 당시에 사람들이 모여 당을 이룬다는 것이 현재와는 조금 다른 의미였다. 하지만 왕정시대가 아닌 지금은 국가의 지도자, 국가의 정치가들 또한 국민이 직접 뽑는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국민을 위하지 않고 개개인의 이익과 탐욕을 추구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바로 '僞朋'이다. 이런 점에서 「朋黨論」을 현대에 적용한다면 그 의미와 가르침이 더욱 강화되고 현대 정치인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 된다.

「六國論」- '嗚呼! 以賂秦之地, 封天下之謀臣; 以事秦之心, 禮天下之奇才;
並力西嚮, 則吾恐秦人食之不得下咽也.'

한편, 정치인들이 국가 외교를 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외교의 목적은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이고, 이는 결국 국민들을 위한 것이다. 그런데 그 목적과 행위가 전도되어 강대국에게 쩔쩔매어 강대국의 이익을 위하고 나라 안을 살필 줄 모르면 나라가 부강해질 수 없다. 육국이 진나라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군사적 위협이 가해졌다면, 지금 우리가 강대국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경제적, 외교정치적인 위협이 뒤 따를 것이다. 무력이 아닌 외교•경제의 위협은 어찌 보면 더 심각한 위협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내실을 다지면 이겨낼 수 있는 위협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위 문장에서 말한 것처럼 강대국을 섬기는 만큼이라도 국가 안의 인재를 키우고 국민의 이익을 위한다면, 국가의 내실을 다져서 강대국에 대항할 수 있는 힘 또한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다른 시기에 이번 수업을 들었다면 위정자에게 가르침을 주는 글보다는 옛 성인들이 전해주고 있는 배움에 대한 고민이나 인생에 대한 성찰이 나에게 더욱 가깝게 느껴졌을지 모른다. 무한한 삶을 꿈꾸었던 옛 사람들과 내 삶을 비교해보기도 하고, 글을 써서 후세의 사람들이 자신의 글을 읽고 감정을 공유할 때 작가는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독자의 마음속에서 살아있을 수 있다는 왕희지의 발상에 놀라기도 했다. 이러한 개인적인 감상과 고민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서 뜻 깊은 시간이었다. 하지만 아무래도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역사의 큰 변동기에 위치해 있는 만큼, 그 흐름 가운데 서있는 학생으로서 정치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다. 과연 현재 대한민국이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는 가치는 무엇인지, 민주주의 국가라는 이름하에 민(民)이 진정으로 주(主)가 되고 있는지, 어떠한 사고방식과 행동이 잘못되었기에 최근 일련의 문제들이 발생한 것인지, 여러 작품을 읽으며 고민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배움이 탁상공론에서 그치지 않도록, 배움을 더하여 사회에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첫걸음이 되었으면 좋겠다.

홀로서기[自立]에 앞서

정재원

-진짜 스승을 찾아서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교 5년, 총 17년의 길고 길었던 학생으로서의 생활의 끝이 보인다. 말을 하고 생각이 생기면서부터 유치원에 다녔을 테니 지금까지 삶의 대부분을 선생님의 가르침 아래에서 살아왔다고 할 수 있다. 모르는 것이 생기면 선생님께 여쭤보는 것이 당연했고, 당장 의문점이 없더라도 스승의 존재 자체로 안정감을 느끼곤 했다. 학업을 끝내려는 문턱 앞에서 더욱 불안하고 어찌할 바 모르겠는 가장 큰 이유는 스승의 부재를 경험한 적 없어서였기 때문인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한유의 <사설>은 스승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 吾師道也. 夫庸知其年之先後生於吾乎. 是故無貴無賤, 無長無少, 道之所存, 師之所存也.
> 나는 **도를 스승으로 삼으니** 어찌 나이가 나보다 먼저 나고 늦게 남을 따지겠는가?
> 이런 까닭에 귀하거나 천하거나,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할 것 없이,
> **도가 있는 곳이 스승이 있는 곳이다.**
> -한유, <사설> 中-

한유는 스승이란 나보다 먼저 난 사람이 아닌, 도道 그 자체라고 말한다. 지금까지는 제도적으로 정해진 선생님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스승이 없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도 도를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든 내가 찾아가 스승으로 삼고 따를 수 있다는 것이다. 공자의 '三人行必有我師焉'이라는 말처럼 어디에든 스승 삼을 만한 사람은 있다. 스승의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의 전환을 발판 삼아 학업을 마친다면 최근에 느꼈던 불안함을 조금은 떨쳐낼 수 있을 것 같다.

-부모로부터의 독립

20대 중반에 들어서니 현실적인 생각이 부쩍 많아진다. 부모님과 사소한 말다툼이 생겨 독립하고 싶단 생각이 들다가도 주변 집값을 알아보면 그런 마음이 자연스럽게 눈 녹듯이 없어지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달이 용돈까지 쥐어주시는 부모님의 은혜에 한없이 감사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이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부모님의 지원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부모님의 도움 없이 나 자신의 힘으로 당신들께서 일구어놓았던 만큼만이라도 쫓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깨닫게 된다. 하지만 언젠가는 독립을 해야 할 테고, 나도 자식들을 낳아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달이 용돈까지 쥐어주는 날이 올 것이다.

> 凡植木之性 其本欲舒 其培欲平 其土欲故 其築欲密 旣然已 勿動勿慮 去不復顧
> 무릇 나무의 본성은 그 뿌리를 바르게 펴고자 하며, 그 북돋는 것은 평평하고자 하며, 그 흙은 옛것이고자 하며, 그 다지는 것은 단단하고자 합니다. 이미 그렇게 했으면 그만이지, **건드리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으며 떠나가 다시 돌아보지 않습니다.**
> -유종원, <종수곽탁타전> 中-

곽탁타가 말하는 나무를 잘 기르는 방법은 다름 아닌 나무를 '그대로 두는 것'이다. 즉, 자립한 이후에야 비로

소 자신의 본성에 가장 잘 맞게 자랄 수 있다는 것이다. 언제까지건 부모님의 그늘 아래에서 살 수도 없고, 그것은 내가 가능성을 펼치는 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 실제로 나 또한 여전히 직장을 고르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나의 만족보다는 부모님의 만족에 무게를 두는 모습을 발견하곤 하는데, 부모님의 지나친 기대가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느낌을 받는다.

나의 홀로서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것은 부모님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장난스럽게 '29살이 되면 자동 출가'라는 말을 하시긴 하지만, 최근 취업이나 독립 문제에 있어서 오히려 부모님께서 더 전전긍긍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곤 한다. 이런 과정 속에서 다툼이 자주 생겨 부모님께 '저의 일은 제가 걱정할 테니, 부모님께서는 염려보다는 믿음으로 응원해주셨으면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부모님의 모습은 '사랑을 줄 수 있는 특권'을 빼앗긴 것만 같았다. 부모님에게 있어서 자식걱정은 사랑의 표현방식 중 꽤나 큰 것이었던 것 같다. '건드리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으며 떠나가 다시 보지 않는다'는 곽탁타의 종수법은 말로는 쉽지만 사람에게 적용하면 말처럼 쉽지 않은 일인 것 같다.

> 大凡物不得其平則鳴 (중략) 其於人也, 亦然.
> **대개 만물은 평정을 얻지 못하면 소리를 내게 된다. (중략) 이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이다.**
> -한유, <송맹동야서> 中-

한유는 보잘 것 없는 관직에 발령 받은 맹동야를 위로하기 위해 이 글을 썼다. 어려운 상황에 있을수록 좋은 글이 나올 것이라며 위로하는 이 글이 오히려 지금에 이르기까지 명문으로 칭송 받는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맹동야를 보내는 한유의 마음도 크게 동요했기에 이런 명문장이 나온 것이다. 친구를 보내는 마음에도 역사에 기록될 명문을 낳는 큰 울림이 있었는데, 하물며 자식을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 언제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해서 진정으로 독립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홀로서기를 향한 첫 걸음을 두려움보다는 기대함으로 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온유설(溫柔說)

강온유

‘千里馬는常有나, 而溫柔는不常有라. 천리마는 항상 있지만 온유는 늘 있지 않다.’ 정형화된 인재는 많을 수 있으나 강온유만이 지닐 수 있는 고유한 재능은 전무후무하길 바라며 한유의 ‘馬說’의 한 구절을 인용해 보았다. 누가 뭐래도 오늘날 우리 사회는 자기 PR의 시대임이 틀림없다. 재야의 고수는 영원히 재야에서 빛을 발하지 못할 확률이 높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한다. 그 옛날 한유마저 본인을 천리마에 대입하여 자기 자신의 대우받지 못하는 능력을 백락이 알아봐주고 인정해주길 바라며 글을 쓴 것이다. 발표를 준비할 당시의 감상은 주로 ‘백락 없음에 좌절치 말고, 천리마로서의 내실을 다지며 살자!’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 글에서는, 천리마란 어떤 존재이고, 나는 어떠한 천리마이며, 천리마로서의 내실은 어떻게 다져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해보고자 한다.

우선, 천리마란 글자 그대로 하루에 천 리를 달릴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비범한 말을 의미한다. 여타 보통의 말들과는 차원이 다른 재능 덕분에 어마어마한 양의 먹이를 먹는 것은 물론, 백락과 같은 훌륭한 지도자를 필요로 한다. 하지만 당시 한유의 처지와 마찬가지로 현 사회에서도 뛰어난 안목의 백락은 흔히 찾아볼 수 없다. 한유는 이러한 사태를 글로써 탄식함에 그쳤지만, 나는 현 사회의 우리가 낙담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내가 바로 천리마라고 외칠 수 있을 만큼의 이렇다 할 내실을 다지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에서의 천리마와 같은 인재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 여러 덕목들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그 어느 요소보다 필수적인 천리마의 자질은 바로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라 말하고 싶다. 개인의 명예와 사리사욕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의 권리를 일말의 죄책감 없이 탄압하는 사람이라면, 하루에 천만 원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인재라 할지언정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더디더라도 모두 함께 성장함의 가치를 중히 여기는 이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천리마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그렇다면 나는 사람의 귀함을 잘 알고, 각기 다른 다양한 사람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천리마일까? 살아온 세월이 참 짧지만 와중에 나에게 깊은 깨달음을 준 것은 언제나 ‘사람의 잠재력’이었다. 겉으로 드러나는 지식보다, 자신의 신념을 실천으로 옮길 때 십분 발휘되는 그 사람만의 잠재적인 능력이 늘 나를 놀라게 했다. 그럴 때마다 훌륭한 인재란 자신의 잘남만을 드높이는 이가 아닌 자신과 동행하는 많은 이들의 백락이 되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각 사람이 지닌 특별한 재능을 간파하고, 이를 한 데 모아 종국에는 더 큰 힘을 낼 수 있게 만드는 백락 말이다. 되돌아보면, 나를 춤추게 했던 칭찬들 중 가장 오래도록 기억하고 싶은 것이 바로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최상의 협력을 이끌어 냈다’이다. 너는 무엇에 능하고, 어떠한 방면에 뛰어나다 등의 강온유 개인으로서 받는 칭찬보다, 하나의 공동체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우수함이 시너지를 이루도록 만들었다는 평이 나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큰 의미로 다가왔다.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구슬들이 하나의 보배가 될 수 있도록 이들을 잇는 한 가닥의 실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하다. 나는 보배를 꿰는 한 가닥의 실 같은 천리마이고 싶다.

다양한 구슬을 하나의 보배로 꿰는 실이 되기 위해서는 각 구슬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발견하는 이는 그 잠재력의 특징을 매우 상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항상 큰 그림을 구상하며 여러 능력과 자질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도 꿰뚫고 있어야할 것이다. 이러한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는 결국 원점으로 돌아와야 한다. 사람이 답이라는 것이다. 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며 다양한 의견을 듣고 배워야 한다. 나와는 다른 관점과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이들이 나의 선생이 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常有하는 천리마가 아닌, 不常有하는 백락이 되리라 꿈꿔본다.

苛政猛於虎

김송

臣聞朋黨之說은 自古有之니 惟幸人君은 辨其君子小人而已라.(신이 듣기로 붕당의 설은 예로부터 있었으니, 오직 임금께서는 그들이 소인인지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최근 며칠 사이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나올법한 일들이 현실이 되어 나타나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국민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실 속에서 분노하고 있다.

구양수는 붕당론(朋黨論)에서 이렇게 이야기 했다: "臣聞朋黨之說은 自古有之니 惟幸人君은 辨其君子小人而已라.(신이 듣기로 붕당의 설은 예로부터 있었으니, 오직 임금께서는 그들이 소인인지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붕당을 이루어 살아간다. 작게는 친구들 간의 모임 크게는 한 나라의 국회까지 붕당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붕당론에서 구양수는 소인들의 붕당인지 군자들의 붕당인지의 판단 기준은 붕당을 결성하여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한다고 했다.

최근 뉴스기사들을 보면 국민들 대표하고 대통령을 도와 나라를 이끌어야 하는 정치인들의 붕당이 소인의 붕당보다도 못하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그렇지 않은 정치인들도 분명 존재 할 것이라고 믿지만 혹은 그렇게 믿고 싶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로는 군자들의 붕당이어야 마땅한 정치인들의 붕당이 소인의 붕당보다도 못하다는 사실이 명백하다. 그들은 겉으로는 국민들을 위하는 것처럼 행동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먼저 챙겨왔다. 국회의원이란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를 이루는 구성원'이다. 국민을 대표해야 하는 사람들이 정작 국민들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이익관계에 얽매여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해왔다는 사실은 그들을 국회위원이라는 자리에 앉게 해준 국민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배신감과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소인의 붕당인지 군자의 붕당인지 분별을 해야 하는 대통령은 더 참담하다. 국민들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만들어낸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그 권력을 최순실이라는 사람에게 주었고 대통령으로써의 무능력함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공개 되었다. 대통령은 소인이 붕당인지 군자의 붕당인지 분별을 하기는커녕 그 자신도 소인의 붕당의 일원임을 온 국민으로 하여금 알게 한 것이다.

한국 영화에서는 종종 정치인들의 어두운 내막을 다룬 이야기를 볼 수 있었다. 나는 전에 '내부자들'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너무 비현실적이고 영화에서나 나올법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들이 정말 현실에서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얼마 전 본 '판도라'라는 영화에서는 강진으로 인한 원자력 폭발사고에 정치인들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한 정부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예전과는 다르게 이것이 충분히 우리의 현실 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영화가 끝나고 두려운 감정이 들기도 했다. 그리고 영화 속에서 보여 지는 무능한 정부의 모습이 2년 전 국민들이 차가운 바다 속으로 가라 앉는 것을 막지 못한 우리나라의 현 정부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더 이상 영화를 영화로만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의 현실일 수도 있다는 걱정을 먼저 하게 되는 이러한 현실이 안타깝게 느껴졌다.

'苛政猛於虎' 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

유종원(柳宗元)의 포사자설(捕蛇者說)에서는 뱀을 잡아 살아가는 한 인물을 통해 그릇된 정치가 백성들에게 끼치는 피해를 고발하고 있다. 특히 이 글에서 인용한 '苛政猛於虎'(가혹한 정치는 호랑이보다 무섭다)라는 구절은 이를 무엇보다 잘 나타내는 구절이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등 가혹한 정치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추위 속에서 목청을 높여 소리를 질러야 했다. 광화문 광장에는 최대 232만 명의 국민들이 나와 청와대를 향해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시위를 열었다. 시위에 나온 사람들 중에는 거의 100세가 되신 어르신도 있었으며 아직 말도 하지 못하는 아기부터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도 있었다. 그들에게는 매서운 추위와 맞서는 것보다 고등학교 3년 내내 준비해왔던 수능을 못 보는 것보다

정부의 나몰라라 하는 태도가 더 무서웠기 때문이다.

나도 지난 11월 8월 우리학교 학생들과 함께 청량리역까지 촛불을 들고 행진을 했다. 그 순간만큼은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되어 민주주의를 외치고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 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참여 해 본 시위였다. 어색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슬프기도 했으며 기분이 이상했다. 청량리역으로 향하는 길에 거리와 주변 상가에서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셨다. 역에 도착해서 학생들과 시민들의 자유선언을 듣는 내내 괜히 울컥하는 마음이 들기도 했고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위가 끝날 때까지 차마 자리를 뜰 수가 없었다.

잘사는 사람들은 계속 잘살고 못사는 사람들은 계속 못사는, 결코 호락호락 하지만은 않은 사회 속에서 간간히 살고 있는 국민들을 추위 속으로 내몬 것은 대통령이고 정부이고 가혹한 정치이다. 이처럼 호랑이보다 무서운 정치 속에서도, 미래를 예측할 수조차 없는 불안한 현실 속에서도 수많은 촛불들이 곳곳에 모여 대통령의 탄핵 안 가결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끝이 아닌 시작이며 아직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촛불들이 2016년 한겨울 찬바람에도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다.

욕심 부리지 않는다는 것

이현지

이번 학기는 나라 안팎으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연달아 일어난 시기였다. 그래서인지 유독 사회, 정치와 관련된 글이 눈에 더욱 잘 들어오기도 했고, 공감과 이해도 쉬웠다. 하지만 문득, 세태를 비판하고 문제의식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깥 상황이 어지러울수록 더욱,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성찰하고, 내면을 올바르게 가꾸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바람직한 삶의 마음가짐에 있어 나는 특히 '지나치게 욕심 부리지 않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 어찌 보면 최근 일어나는 여러 어지러운 상황들도 결국은 개인의 지나친 욕심들이 점점 불어나며 생겨난 결과물이 아닐까.

이번학기에 배운 명문 중에서도 욕심 부리지 않는 삶과 관련된 주제의식과 구절들이 많이 찾아볼 수 있었다. 먼저 陶淵明의 五柳先生傳에는, 環堵蕭然 不蔽風日 短褐穿結 簞瓢屢空 晏知也 常著文章自娛 頗示己志 忘懷得失 以此自終 과 같은 구절이 있다. 좁은 집에 살며 허름한 옷을 입고 끼니도 제대로 챙겨먹지 못하지만 마음만은 편안하다고 말하는 구절이다. 아늑한 집에 살며 삼시세끼 따듯한 밥을 먹을 수 있으면서도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가지기 위해 전전긍긍하고는 하는 나를 비롯한 여러 현대인들의 모습과는 참 대조적인 마음가짐이다. 심지어 아예 '득과 실에 대한 생각을 잊고서, 이러한 상태로 자신의 일생을 마치려하였다'는 구절도 있다. 不戚戚於貧賤 不汲汲於富貴. 빈천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귀에 급급해하지 않는다는, 五柳先生傳에서 내가 가장 인상 깊게 읽은 구절이다. 나는 이미, 늘 경쟁을 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해야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너무나 익숙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오류선생처럼 득과 실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잊고 지금의 상태에만 만족하며 일생을 마친다는 것이 나로서는 상상이 가지 않는 일이다. '멋지다', '대단하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나도 저렇게 살아야겠다.'보다는 '나도 저렇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만 든다. 역시 안빈낙도의 경지에 오르기는 참 어렵다.

또 다른 작품인 李白의 春夜宴桃李園序의 첫 구절은 夫天地者 萬物之逆旅 光音者 百代之過客, '천지라는 것은 만물을 맞이하는 여관이며, 시간이라는 것은 영원을 거쳐 지나가는 나그네'라는 구절이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수업시간에 이 구절을 읽을 때에도,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그저 멋진 비유라고 생각하는데서 그쳤다. 하지만 '욕심 부리지 않는 삶'이라는 키워드에서 다시 이 구절을 이해해 본다면 어떨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우리를 잠시 재워주는 여관이라면, 이 곳에서 굳이 너무나 많은 것을 탐하고 살지 않아도 된다. 또 시간이라는 것이 우리를 구속하고 재촉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함 속을 떠도는 나그네에 불과하다니!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구절은, 하루를 잘게 쪼개어 살며 늘 바쁜 하루하루를 꾸역꾸역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토닥여줄 수 있는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너무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무리하지 않아도 괜찮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이 세상에 잠시 들른 것일 뿐, 언젠가는 다시 이 곳을 떠날 것이니까.'라는 위로를, 작품을 통해 고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다.

蘇軾의 前赤壁賦에도 且夫天地之間 物各有主 苟非吾之所有 雖一毫而莫取, '천지 사이에 만물은 각각 주인이 있는 것이라 진실로 나의 소유가 아니니 비록 한 털끝만한 것이라도 취하지 않는다.'는 구절이 있다. 이 구절에서도 나는 '욕심'에 대한 작가의 생각과 경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고작 10년 전의 일도 가물가물하여 한참 전에 있었던 일로 여기는 나에게, 前赤壁賦가 쓰인 1082년은 가늠조차 하기 어려운 옛날임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의

구절이 나에게 위안과 안도를 느끼게 해준다니, 신기한 일이다. 每有意會 便欣然忘食, 뜻에 맞는 글이 있으면 너무나 즐거워 식사조차 잊었다는 오류선생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종종, 노력을 하지 않거나 의욕이 없다는 등의 의미와 결합되어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마음이 답답하면서도 조급해진다. 무언가를 더 해야 할 것 같고, 더 많은 경험을 쌓아야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든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때, 고대 문장가들의 멋들어진 구절과 비유를 떠올리며 작은 위로를 얻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朋黨論을 통한 대한민국의 정치를 살펴보며

이지웅

이번 학기 명문감상의 수업을 통해 고전이 지금까지도 현대인들에게 읽히고 있는 의의를 살펴보았다. 그 중에서 고전을 기준의 척도로 삼아 현재의 문제점을 진단해보고, 이를 통해 교훈을 얻는 감상방식은 내게 가장 흥미로웠다. 그렇다면 구양수가 붕당론에서 말한 '군자를 위한 붕당'의 개념을 현대로 가져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여기서 먼저 민주주의국가에서 군자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정하고 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주권의 주인인 모든 국민들을 군자라 부르고 싶지만, 현실적으로는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 뽑은 대통령을 군자라 칭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다. 구양수는 붕당론에서 군자는 진붕을 취하고 위붕을 버림으로써, 진붕과 함께 선정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기서 이전과 현대의 다른 점이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이전에는 군자라는 자리는 세습이었지만, 지금의 군자라고 부르는 위치는 국민들의 투표를 통해 뽑는다. 즉, 현대에 들어와서는 국민들에 의한 진군자(眞君子), 위군자(僞君子)의 구분이라는 과정이 생겼다고 볼 수 있다. 이 부분에서 프랑스 정치가 토크빌의 '모든 국민은 그들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라가 떠올랐다. 이 말은 지금까지도 나에게 너무나도 와 닿았다. 2012년 대선 때 나는 군인신분으로 정치에 문외한이었다. 나는 당시 대선후보들이 내놓은 공약이나 이전의 행실은 고려하지 않은 체 첫 여성대통령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갖고 우매한 결정을 내렸다. 지금 생각하면 내 자신에게 너무나도 부끄럽다. 결과적으로 위군자가 선출되었다. 군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부터 거짓이니 진위붕을 구분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뿐이다. 현재 한국을 어지럽히고 있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미래의 한국 민주주의 정치를 위해서 비싼 강의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는 국민을 대변하는 군자를 선출하는데 있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두 번째로 붕당, 즉 정당을 구성하고 국민을 대변하여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 또한 국민이 뽑는다는 것이다. 정당을 구성하는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과 자신들을 뽑은 국민들의 의견이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분에서는 위군자를 감싸고 있다. 이들은 대통령이 탄핵되었을 때 잃어버릴 정권의 욕심에 눈이 멀어 현재 분노하고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는 모양이다. 다음 총선 때 위붕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에게 국민들은 현명한 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본다. 이렇듯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들의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수업시간에 군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 토론을 한 적이 있었다. 그때 여러 학우들이 말했던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현대식 군자를 선출하는 권리를 갖고 있는 우리 자신들이 갖추어야 할 덕목이 아닌가 생각해보게 되었다.

총평을 마무리하면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않는다'구절이 떠올랐다. 이제껏 나는 투표를 통한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출하지 않은 채, 정치판을 마냥 비난하기만 했다. 즉, 권리를 제대로 실천하지는 않으면서 혜택만 누리려고 했던 것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군자와 붕당을 구성하는 이들은 국민의 손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부터 시작하여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더욱 더 성숙한 사고방식을 갖춘다면 미래의 대한민국에서 진군자와 진붕의 선정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위선자의 변명

이하림

<<포사자설>>에는 <<가정맹어호>>의 일화와는 다르게 '이웃'이 등장한다.
"永州之野 産異蛇 黑質白章 觸草木 盡死 以齧人 無禦之者 然得而腊之 以爲餌 可以已 大風攣踠瘻癘 去死肌殺三蟲 其始太醫以王命聚之 歲賦其二 募有能捕之者 當其租人 永之人 爭先走焉"
"영주의 들녘에 기이한 뱀이 나는데...(중략) 그 뱀을 잡아 포로 만든뒤 약용으로 먹으면...등을 치료할 수 있고...(중략) 어의가 왕명으로 그 뱀들을 모아 일년에 두 마리를 부세로 내게 하였는데, 뱀을 잘 잡는 사람을 모집하면서 ."
"曩與吾祖居者 今其室十無一焉 與吾父居者 今其室十無二三焉 與吾居十二年者 今其室十無四五焉 非死則徙耳 而吾以捕蛇獨存"
"예전에 저의 조부와 함께 살았던 집안들 가운데 지금은 열에 하나도 남아 있지 않고 저의 부친과 함께 살았던 집안들 가운데 지금은 열에 둘셋도 남지 않았습니다. 저와 함께 12년 동안 이곳에서 살던 집안들 가운데 지금은 열에 네 다섯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거나 아니면 떠나버렸기 때문에 오로지 저만은 뱀을 잡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이웃'들은 기본적으로 첫구절에 등장하는'영주사람들'이다. '영주사람들'은 기이한 뱀을 잡는데 앞다투어 나서지만 그에 왕왕 실패한다. 실패 후 장씨네가 뱀을 잡아 그나마 편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옆에서 죽어가고 떠나가며 지켜보는 '이웃'들은 장씨네에 대한 이유모를 배신감과 질투를 느끼지는 않았을까? 당시의 나는 이것을 일제시대와 우리네 삶과 함께 연결시켰다. 일제시대에는 나서서 친일한 사람보다는 시대에 순응하듯, 혹은 살아남기 위해 친일한 사람이 더 많았다고 한다. <<포사자설>>에 등장하는 '왕실'을 일제, 혹은 현대의 대기업으로 놓고, 장씨네를 그렇게 친일한 사람들, 혹은 소위 대기업에 들어간 사람들로 보고, 나머지 사람들을 이웃으로 보면 하나의 프레임이 나왔다. 사실 이 프레임은 한 영화에서 모티브를 가져온 것이다. <계몽영화>에는 <<포사자설>>처럼 3대가 나온다. 30년대, 60년대, 80년대에 젊은이였던 각 3대의 모습이다. 영화는 해당 시대들에 도태되지 않고 주류로, 살아남기 위해서 이들이 무엇을 해야했는지, 그것이 우리사회에 어떤 병폐를 낳게 되었는지를 직간접적으로 조명한다. 이를테면 (80년대 젊은 세대를 기준으로)30년대에 할아버지는 처자식을 안정적으로 먹여 살리기 위해 독립운동을 하는 친구의 기밀을 누설했다. 60년대의 아버지는 카투사를 다녀오고 양음악을 들으며 6.25 이후 친미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얼마나 유리한 것인지를 깨닫고 미국을 찬양한다. 80년대의 주인공은 자식을 데리고 미국 조기 유학길에 올라있다. 해당 시기들의 장씨들이라고 감히 불러도 되지 않을까 싶다. 이 영화를 교양 수업에서 처음 접하고 조원들은 양가감정에 이들을 욕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혼란에 빠졌다. 우리들 가운데 죄가 없는 자만이 이들에게 돌을 던져라. 시립대 청소 노동자 시위 천막을 무덤하게 스쳐간 사람들. 주류를 한번이라도 꿈꿔보지 않은 자가 있는가? 현대 사회에서 주류는 별것이 아니다. 대기업에 들어가서 돈 많이 버는것. 해외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것. 장씨에 대한 프레임은 여기서 출발했다.
그런데 '현재의 모든 우리는 꼭 장씨, 이웃, 왕실 셋 중 하나의 역할을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한번 쯤 생각해볼 일이다.'라며 <<포사자설>>을 끝맺으면서도 감히 덧붙이지 못했던 마지막 고백이 있었다. 얼마전'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있고,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이 나라에서 계속 먹고살기는 힘들다는 절망적인 분위기가 정점을 찍었던 때가 있었다. 그 때는 주변인들과 '이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흔했다. 실은 이건 근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들과 농담반 진담반으로 주고 받았던 이야기들이다. "정 안되면 이민이나 가야지! 나라가 해준게 뭐가 있다고!"과연 나에게 성공적인 이민(소위 선진국의 화이트칼라로)을 할 수 있는 기회나 조력자가 주어진다면 나는 장씨가 되지 않고 배길 것인가. 그게 내가 덧붙이고 싶었던 <<포사자설>>

의 마지막 감상이었다.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나는 내가 사랑하는 것들과 사람들이 나고자란 이 땅에 마찬가지로 애착을 가지고 있지만 애국이라고 할만한 것들이 나에게 있는지. 누군가는 아프리카에 태어나지 않아서 다행으로 생각해야한다고 말한다. 그렇다고 한국에서 태어나서 다행이 아닌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상해에서 유학하면서 겪은 억울함의 대부분은 내가 한국인이기 때문이었다. 한국인이기에 가지는 나라에 대한 답답함과 억울함은 <<육국론>>을 읽으며 "夫六國與秦皆諸侯，其勢弱於秦，而猶有可以不賂而勝之之勢"라는 구절에 경도되게 했다. 이 나라가 그러니까 내가, 마냥 대국들의 눈치만 보고 살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지않을까? 하지만 그것은 가망 없는 자기위로에 그치고, 현실에서 이 열망은 '이민에 대한 환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듯 나는 위선자이다. <<송맹동야서>>의 감상에서 밝힌 바와 같이, 시청 근처에서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며 "大凡物不得其平則鳴", 만물이 평정을 얻지 못하면 내는 소리를 듣고 공감하면서도,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함께 소리 낼 엄두는 못하는. 쉬는 시간에 잠깐 나가보는게 고작이고,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대열 끝물에라도 낄라치면서도, 언젠가 이민 제의가 오면 흔들리는. 그래서 나는 '장씨'이자 '이웃'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들 중 죄가 없는 사람만이 나에게 돌을 던지라고 하고 싶었다.

구양수에 투영해 본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

장은서

취옹정기를 찬찬히 읽으면서 저주에서 폄적되었지만 즐거운 시간을 보낸 태수 구양수의 생활을 더 파헤쳐보기보다는, 삶과 백성을 대하는 그의 태도, 성격적 측면 등에 주목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도자와 정치인, 국민이 가져야 할 소양과 이상적인 모습들에 접목시켜보았습니다.

제일 눈에 띄었던 것은 지금 현대에서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볼 수 없는, 여민동락(與民同樂)하는 지도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구양수는 태수로서 백성에게 관대하고 그들에게 연회를 베풀어 백성들을 편안하게 했는데, 이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리고 작품 속에서의 취옹정은 주변의 자연환경과 어우러져 저주라는 고장 자체와 결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구양수만의 개인적 공간이라는 느낌보다 백성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좌천이 된 뒤 취옹정을 짓고 나서야 비로소 백성들과 가까워 질 수 있었고, 그들 생활의 실체를 몸소 체득할 수 있었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청와대는 국민들과 가까워질래야 가까워질 수 없는 그런 위치 선상에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국민들의 생활이 어떤지 함께 고민하고 그들 생활터전에 방문해 어려움을 듣고 그들 삶에 녹아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현재의 상황에서 과연 그런 지도자를 배양할 분위기와 여건이 되는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느꼈습니다.

또한 새들은 산수를 즐기고, 사람들은 자연 환경과 태수의 연회에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태수는 산수, 연회의 즐거움, 그리고 즐거워하는 백성들을 보는 또 다른 기쁨을 느끼는 사실상 감정의 중앙에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가 느끼는 감정은 혼자밖에 모르므로 어쩌면 즐거우면서도 고독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막중한 책임감과 고독함, 여러 가지 감정들이 혼재하고 있는 자리가 지도자의 위치임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분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은 자득(自得), 스스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지금 인생의 위치에서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이 적고, 항상 불안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구양수는 누명을 쓰고 좌천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풍경과 자신이 처한 상황을 진정으로 즐겁게 여기며 받아들였습니다. 실패와 좌절 앞에서 너무 나약한 저를 반성하면서 그런 그의 모습이 대단하다 여겨졌고, 그의 자존감은 아마 매우 높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구양수는 굉장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했는데, 그런 모습에서 저는 구양수가 '나'라는 존재에 대한 뚜렷한 자각과 자신감, 자기 효능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자기효능감이란 원하는 결과를 자신의 역량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자신에 대한 신념이나 기대감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작품에서 '깨어나 문장으로 능히 서술할 수 있는 사람은 태수인 나뿐이다.'라는 대목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유아독존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지만, 이러한 자신감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어느 정도 필요한 자양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존감과 효능감이 높을수록 문제를 해결할 방식을 스스로 찾고, 직면한 문제에 대한 지속성과 동력도 더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는 미사여구로 가득한 글들에 불만을 느껴 문풍 개혁 역사를 새로 쓰기도 하였으며, 벼슬은 높지 않았지만 조정의 일에 지대한 관심을 쏟는 행보를 보이는 등 이 시대의 정치인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여민동락하는 위정자, 주어진 문제를 융통성 있게 처리하는 정치인, 자존감이 높은 국민, 이 모습이야말로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끝으로, 사물에 격하지 않고 소신 있었던 구양수의 삶은 행복에 가까웠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일반인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효용적 가치가 큰 그의 작품들은 그의 모습을 많이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20대의 용기

선민정

< 종수곽탁타전 >

有問之하니 對曰 槖駝는 非能使木壽且孳3)也요 以能順木之天하여 以致其性焉爾라. 凡植木之性이 其本은 欲舒하고 其培는 欲平하며 其土는 欲故하고 其築은 欲密이라. 旣然已에 勿動勿慮하여 去不復顧하니 其蒔4)也에 若子하고 其置也에 若棄하면 則其天者가 全하여 而其性이 得矣라. 故로 吾不害其長而已5)요 非有能碩而茂之也며 不抑耗其實而已요 非有能蚤而蕃之也라.

“나는 나무를 오래 살게 하고 또 번성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무의 천성에 따라 그 본성을 다하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무릇 심겨진 나무의 본성이란 그 뿌리는 뻗으려고 하고 그 북돋움은 고르기를 바라며, 그 흙은 옛것을 바라고 그 다짐은 촘촘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한 뒤에는 건드리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아 떠나서는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아야 하니, 심을 때에는 자식과 같이 하고 내버려둘 때에는 버린 듯이 하면 그 천성이 온전해져 그 본성이 제대로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것이 자라는 것을 해치지 않을 뿐이지 그것을 크고 무성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것이 열매 맺는 것을 억누르거나 손상시키지 않을 뿐이지 그것을 일찍 열매 맺고 번성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나의 삶 돌아보기 >

그 동안 나의 삶을 돌아보니, 나는 스스로 무엇을 ‘위하여’ 살아 왔던 것 같습니다. 학생일 때는 학생이니까 공부를 잘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고, 삶에서 주어진 것들에 충실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제 스스로의 여가 시간 보다 주어진 것들을 지나치게 완벽히 처리하려고 노력한 적도 있습니다. ‘mind controlling’이라는 말 아래, 늘 내가 무엇을 하고 싶고 어떤 꿈이 있는지 등의 내부에 집중하기보다 외부의 기준에 비추어 자기 자신을 비추어보고, 한때는 그 기준에 도달하려고 애쓰는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제가 생각했던 어떤 보편적인 기준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면, 그 기준 혹은 이념과 저의 현실 사이에서 괴리를 느끼며 힘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어떤 존재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기준이 있다고 생각했고, 되어야 할 모습이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종수곽탁타전’에서 모든 나무는 웅장하고 크게 자라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 저는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곽탁타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더 크게 자라도록 비료를 주고, 흙을 갈아주지는 못할망정 뿌리가 구부림 없이 평평히 자라도록 흙만 덮어 놓고 그 뒤에는 대충 버린 듯이 한다는 것은 제 기준에서는 무관심이자 방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나무가 그렇게 자라야 한다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나무는 작지만 예쁜 꽃을 피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꽃을 피우지 못하더라도 나무젓가락의 재료가 되어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를 사람에게 대입해 보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 ‘실존이 본질보다 앞선다.’ >

사람은 도구와는 다른 존재입니다. 실존은 가상 혹은 관념으로 존재하지 않고, 눈앞에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본질이라는 것은 바로 정해진 ‘용도’와 같습니다. 대부분 도구를 볼 때, 우리는 그것의 용도를 먼저 생각합니다. 의자는 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종이는 누군가에 의해 쓰여 지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은 도구와 다르게 미리 어떤 정해진 본질, 정해진 용도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되고 제작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로서’ 존재할 뿐, 도구처럼 만들어진 목적, 즉 본질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나의 본질은 나의 ‘선택’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종수곽탁타전에 비유하자면 나무 또한 평평하게 되고자 하는 것은 본성이지만, 훗날 그 나무가 어디에 쓰일지 모르는 것처럼, 인간 존재의 본질도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학생이고 누군가의 딸이긴 하지만, 그것이 저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한 부분들은 저의 일부일 뿐, 저의 전부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매 순간 저의 선택, 내가 하고 싶은 선택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지, 지켜야 하거나 주어진 외부의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그 누군가도 그러한 특정한 이념과 기준에 의해 저를 평가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노자의 무위 사상 >

“ 멋대로 하라 그러면 안 되는 일이 없다. (無爲而無不爲) ” -『도덕경』37장

“ 세상 사람들이 모두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알면, 이는 추하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좋다고 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알면, 이는 좋지 않다. (天下皆知美之爲美, 惡已. 皆知善, 斯不善矣) ” -『도덕경』2장

노자의 ‘무위’ 사상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추구해야 할 보편적 이념도 없고, 세계와 관계할 때 사용해야 할 절대적인 가치 기준도 없으며, 내용적으로 정해진 분명한 도달 목표도 없다고 합니다. 개별적 존재들이 특정 이념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발적 생명력에만 의지하는 상태가 ‘무위’입니다.[10] 어떤 사람이 ‘반드시 어떠해야 한다’ 랄지 ‘바람직한 일을 해야 한다’라는 당위의 굴레를 벗어나 아무런 기준이나 목적성의 제어를 받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멋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대상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아름다우면 아름다운 것이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것이 아름답다는 ‘합의’에 이른 것이고, 그 과정에서 아름답지 않다는 의견은 배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절대적인, 보편적인 기준이 존재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멋대로 하는 것은 욕망을 인정하는 데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공부를 잘 해야 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하고, 날씬해야 하고, 등등의 추상적인 이념에 자기 자신을 자꾸 끼워 맞추려하고 합니다. 심지어 그런 기준들은 자신의 욕망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욕망을 좇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을 욕망하고, 그러한 외부에서 주어진 이념, 기준과 현실 사이의 괴리에서 불행함을 느낍니다.

저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바깥의 보편적인 기준들에 휘둘리지 않고 잃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학생으로서 학점을 잘 받고, 취준생으로서 각종 스펙을 쌓는 데 스트레스를 받고, 외부적인 기준에 자기 자신을 끼워 맞추는 것보다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나는 무엇이 되고 싶은 지 등의 ‘나’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했었던 공자의 ‘극기복례’식의 사고방식과는 많이 다른 것입니다. 성인들이 만들고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공인된 ‘바람직한 틀’,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원칙’ ‘좋다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따르고 수용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기에 앞서 더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긍정하는 자세가 오늘날의 20대에게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까지 억압적으로 실시되는 ‘교육’이라는 폭력 아래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찾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도 인생에서 가장 자유로운 시절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학생활 때가 바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때인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20대들이 마음속에서부터 올라오는 욕망을 긍정하고,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들었습니다. 자신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원하는 길을 가는 것이 20대에 필요한 가장 큰 용기 아닐까, 라는 짧은 생각으로 긴 글을 마칩니다.

---

10) 「인간이 그리는 무늬」, 최진석, 소나무. p.134.

種樹郭橐駝傳으로 바라본 복지국가

김기대

처음 저에게 고전을 읽는 다는 것은 기대 반 걱정 반의 일이었습니다. 기대한 점은 고전을 통해서 과거 현자들의 지혜를 배운다는 것이었고 걱정한 점은 고전이 어렵고 지루하다는 고전에 대한 편견이었습니다. 그리고 고심 끝에 열심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수강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초심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사라졌고 어느덧 12월 중순, 종강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한 학기 동안 제가 썼었던 감상문과 다른 학우분들의 감상문을 훑어 보면서 제 자신에 많은 변화가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전이 모호하다는 편견이 깨진 것입니다. 앞서 말 했듯이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은 고전에서 어떠한 지혜를 배울 수 있길 기대합니다. 하지만 막상 배우면 고전의 모호한 이야기에 실망을 하게 되지요. 저 또한 그랬지만 이제는 이러한 모호함이야 말로 동서고금을 초월하는 근본임을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고전과 반대되는 간단명료한 것들은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없는 휘발성이 강한 지식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전이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사실이 이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에세이에서 <種樹郭橐駝傳> 작품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 유종원의 생각에 매우 공감했습니다.

‘以能順木之天 以致其性焉爾 凡植木之性 其本欲舒 其培欲平 其土欲故 其築欲密 旣然已 勿動勿慮 去不復顧 其蒔也若子 其置也若棄 則其天者全而其性得矣 故 吾不害其長而已 非有能碩而茂之也 不抑耗其實而已 非有能蚤而蕃之’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저에게 위와 같은 모습은 유토피아로 느껴집니다. 이 부분을 읽고 있으면 푸른 초원 위를 달리며 책이 아닌 몸으로 직접 배움을 배우고 있는 해맑은 유럽 아이들이 떠오르고, 오직 자신의 관심사에 몰두한 미국의 어느 한 지방, 낡고 작은 창고에서 컴퓨터를 만들고 있는 스티브 잡스가 떠오릅니다. 최근 한국 사회가 열정과 노오력에서 시작하여 수저론, 헬조선으로 곪아 가고 있을 때 항상 같이 언급되었던 곳의 모습이지요. 바로 비좁은 닭장과 같은 교실이 아니라 자연의 교실에서의 배움, 가진거 하나 없는 한 청년의 노력의 결과물이 대기업에게 뺏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브랜드를 만들 수 있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저와 의견이 다른 학우분들은 위와 같은 태도는 무책임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과연 무책임한 것일 까요? 유종원은 ‘旣然已’를 기준으로 전반부에 제시된 조건을 만족한 후의 후반부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미 올바른 나무에게 적합한 환경을 제공해주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관심은 참견이 되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런 사회가 될 수 없을까요? 물론, 이 문제를 논하기에 앞서 제가 위에서 언급한 사회가 올바른 것인지, 과장된 것은 아닌지, 보지 못한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회의 구성원들이 동의하는가에 대해 논의를 거치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몇 년전 정치적 이슈였던 “무상 급식”, “대학 반값 등록금”과 최근의 성남시장 이재명의 급부상을 근거로 현제 사회의 많은 사람들이 변화 꿈꾸고 있고 그 방향은 복지국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복지국가가 되어 가는 과정과 복지국가 건설 이후의 모습을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복지의 기준과 실행 방법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논점에서 복지국가에 대해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교육입니다.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보장해야 하는 의무교육이 어디까지인지 판단하기 힘듭니다. 또한

그 의무교육의 내용이 무엇으로 정해야 할지도 많은 토론이 필요합니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이 바로 서야 국가가 바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국민 교육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의 수준까지 어떤 내용을 배워야 하는 것일 까요?

두 번째는 복지예산 문제입니다. 무수히 많은 토론의 당골 주제로 선정되는 이 문제는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파 옵니다. <種樹郭橐駝傳>의 나무가 잘 자라듯이 저희가 충분히 성장할 수 있고 우리의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겠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